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하리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이상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축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2(1953)년 8월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2(1953)년 7월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39(1950)년 6월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4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6월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6월



궤도작업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0(1951)년 10월



정찰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1(1952)년 6월



전투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1(1952)년 6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42(1953)년 8월

천 만 군 민 의 혁 명 열 , 투 쟁 열 을 백 배 해 주 는 선 군 나 팔 소 리

군 인 가 족 에 술 소 조 공 연 평 양 에서 성 황 리 에 진 행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 가족에 술소조공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 가족에 술소조공연이 17일부터 24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명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가는 어엿한 녀성혁명가,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들로

지난 군인 가족들의 높은 사상 정진세기를 김명길제 펼쳐보인 공연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군인 가족들, 문화예술부문 장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관람하였다.

《백두산전설위인들의 축복》, 《기약4중창 《장군님생각》, 노래와 이야기 《우리도 만리마가수》, 합창 《영원히 한길은 가리마》 등 다채로운 풍채를 띤 무대에 올린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언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군인 가족들의 투쟁모습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정책이 힘있게 맥박치는 공연은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 배추는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 체 조 선 의 승 리 전 통 과 더 불 어 길 이 빛 날 영웅 전사들의 넋

지난 3년간 84만 6 000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경의 표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증공식을 엄숙히 거행한 때로부터 3년이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의 싸움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을 내세우고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혁명적정신과 숭고한 도덕의 리에 떠받들려 초아닌 시대의 기념비이다.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전통을 영민한 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철사웅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공적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름이다.》

참전전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이 세계 《의장》을 떠받치던 미제에게 수직스러운 대항패를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것은 인류전쟁사에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이었다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복속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공헌이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세비와 영웅전사들을 추모하는 헌시비, 군상앞에서 오래동안 단견음을 내지 못하였다.

화환전제 《영웅들의 넋》에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고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은 영웅전사들의 피가 스민 사회주의조국을 복속시켜 지켜갈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면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명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감 떨쳐나선 유영무명의 열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되새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의장》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드를 꺾어놓고 네티막걸의 시초를 열어놓는 력사의 날, 자랑스러운 전승의 명절을 맞게 되었고 있다.

최세의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군사전략과 현명한 병도법에 지난 세기 50년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전승의 축보를 올린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에 의해 불패의 력강국, 최강대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기에 세기를 이어 미국과의 전면대결에서 편편승승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각종 전략핵력적수단들과 《파드》와 같은 첨단사상장비들을 남조선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더욱 포괄적으로 벌여놓는 한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협박적 제재봉쇄, 압박행동에 매여달리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최후승리까지 결코 못하는 운날 못할 망동까지 부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책과 핵위협에 맞서 막강한 자위적역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질방적으로 더욱 역활적이 되어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당한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질없는 침략야망에 사로잡혀 조선반도에서 무력중립과 전쟁연습, 군사적도발

적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최근형성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과기해비되고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들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키는 미국의 책동을 가하여 우리 나라는 언제 열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책과 핵위협에 맞서 막강한 자위적역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질방적으로 더욱 역활적이 되어나가고 있다.

조선반도정세를 전쟁법경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반영한 우표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반영한 우표(소형천지 1종, 개별우표 8종)를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혁신적인 당대회가 진행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4.25문화회관의 건물을 형상한 소형천지의 우표본에는 당마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제를 모시고 당마크가 새겨진 개별우표본에는 당 제7차대회 모고에 제시된 부문별과업들이 반영되어 있다.

공화국영웅들과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의 상봉모임 진행

무쌍한 전력전술, 타월한 명군술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그는 가열치질한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중조직을 전승승리를 위한 장위력한 전위대로 굳게 믿으시고 민중들을 원수적멸의 용사들로 키워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전승승리 중대 민생위원회장으로 사임하신 그는 나라를 찾아주시고 진정한 삶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복속바쳐 싸움으로써 문공계, 서민생전투 등 여러 전투들



흥남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진행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년을 맞아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강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신 전설적영웅이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서해열점수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진압해버릴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 보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피의군우들이 서해적침략에까지 제바라나고 우리 《도발》기능성에 대한 대비대세점침을 떠돌아다니며 복막소동을 피웠다.

《북방한계선》을 한사코 고수해보려는 극악한 흉심의 발로이다.

주제105(2016)번 7월 25일

